## 신임 불교기자협회장에 신성민

### 1월 13일 선출… "회원 유대 강화"



제21대 한국불교기자협회장에 현대불교신문 신성민<사진> 취재부장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월 1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이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엔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 차석부회장엔 BTN불교TV 이석호 기자가 선임됐다. 아울러 부장단 인사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으며, 2019년도 결산보고와 2020년도 사업승인 등이 진행됐다.

신성민 신임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불기협 회원사와 회원 간 교류와 유대가 예전 같지 않다.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성민 회장은 2004년 12월 주간불교에 입사했으며, BTN불교TV 보도국을 거쳐 현재는 현대불교신문사 취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불기협 홍보차장, 총무부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 "고창불교회관 5월 개관"

### 고창 선운사, 교구종회서 밝혀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13일 선운사 설법전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는 보고 및 공지사항, 2020년 교구예산과 2019년 교구결산 심의, 교구 선거관리위원 선출, 기타 교구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사가 건립한 고창불교회관은 5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며 "개관 초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만큼 교구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부대중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구종회에서는 부의장에 정호 스님(강천사)과 진성 스님(내소사)이 선출됐다. 또 교구 선관위원으로는 도완 스님, 대선 스님, 일묵 스님, 종범 스님, 자영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우수사찰 표창에서 종무행정 우수사찰은 문수사 · 내소사, 포교 우수사찰 좋은절, 불사 우수사찰 만일사 · 성불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선운사는 교구종회에 앞서 대웅보전에서 운기당 성원 대종사 3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법현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다 1982년 세납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카슈미르 · 간다라 불교학의 고향"

Interview

### 간다라불교 강연하는 권오민 교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월 12일부터 5주에 걸쳐**
**장충동 문화살롱 '기룬'서**
**아카마지 기획 강연 진행**

"카슈미르나 간다라를 들어본 적 없는 불자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불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흔히 불교학의 고향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했던 인도 마가다나 나란다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불교학의 고향은 카슈미르와 간다라입니다."

아비달마불교를 연구해온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가 그간의 간다라유적 탐방을 거쳐 정리한 간다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강연으로 풀어낸다. 2월 12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열리는 아카마지 기획 강연에서다.

권 교수는 앞서 2015년에 파키스탄 일대를 여행하면서 카슈미르와 간다라유적을 순례했다. 이 과정을 언론사에 연재하고, 못다 한 이야기를 최근 출간한 〈불교학의 고향, 카슈미르와 간다라를 가다〉에 담았다. 이번 강연에서는 카슈미르와 간다라가 어떤 이유로 불교학의 고향인지 조목조목 짚어 설명할 예정이다.

"카슈미르는 실크로드 위에 있어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불교의 전초기지이자 아비달마의 본산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논리를 첫째로 여기는 불교죠. 반면 간다라는 정서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무착 · 세친보살 등 초기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논사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권 교수는 카슈미르와 간다라가 불교학의 고향인 근거로 '결집'을 꼽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뒤 제자들이 왕사성 부근 비파라산 칠엽굴에 모여 가르침을 정리한 제1차 결집, 100년이 지나 바이샬리에서 700여 비구가 모인 제2차 결집, 아소카왕의 주선 아래 1000여 비구가 인도 파트나 지역에서 삼장을 정리한 제3차 결집, 그리고 카니슈카왕에 의해 간다라지역에서 제4차 결집이 이뤄진다. 여기서 티베트불교는 카니슈카왕의 결집을 제3차로 보기도 한다.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결집을 간다라라는 산골에서 한 이유를 찾습니다. 현장 스님은 마가다나 나란다의 불교학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외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다라에서 결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다 지역에서 특정 논서가 저술됐다는 근거는 드물지만, 온갖 구법승들의 기록에는 카슈미르와 간다라지역에서 어떤 논사가 어느 책을 썼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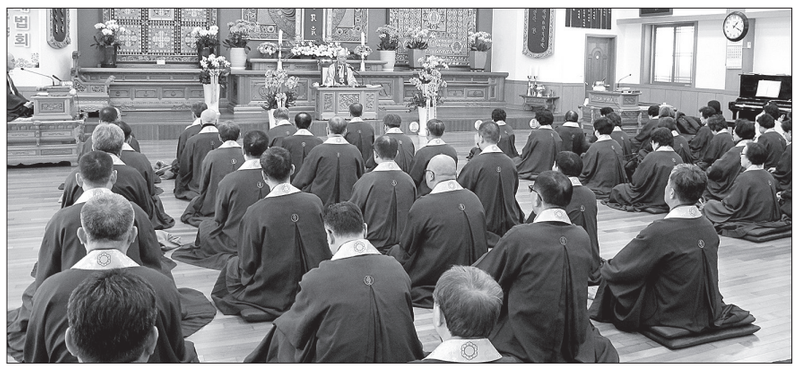
권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불교학의 고향, 카슈미르와 간다라 △카슈미르, 아비달마 비바사의 산실 △간다라1-탁실라, 불전문학 비유문학의 산실 △간다라2-페샤와르, 불교논사들의 고향 △불연의 땅 스와트를 주제로 5주에 걸쳐 간다라불교를 소개한다. 참가비는 회당 2만원이다.

## "모든 시작은 청정에서 출발"

### 불교총지종, 총지사 서원당서 대중 모여 신년하례법회 봉행

정통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은 1월 15일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도 화합과 종단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우선 지난해 종단을 위해 애쓴 여러 스승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저도 올해에는 총본산에 와서 새해 서원 불공에 동참했는데, 한명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회향하는 종도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는 우리 종단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올 경자년에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 나간다면 어려움이 기대 이상의 성공으로 결실을 맺어 좋게 회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공 대종사는 "올 경자년을 뜻있게 회향하기 위해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새롭고 알차게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며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의 청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용맹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교총지종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가 법어를 하고 있다.

이어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종단이 창종 50년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해"라며 "어느해 보다도 모든 종도들이 힘을 모아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하며, 교화에 한발짝씩 더 앞서 나가자"고 결연한 어조로 당부했다.

한편 정통 밀교종단 총지종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의 40여곳 사원서 펼친 '총기 49년 새해대서원 불공'을 성공리에 회향했다. 이번 불공에서는 하루 네 차례 전 교도들이 참여하는 사분정진을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태고종 중앙종회 분과 구성

### 1월 14일 선암사서 1차 연찬회 개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월 14~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제15대 중앙종회 1차 연찬회를 개최하고 총무분과 · 교육분과 · 문사분과 · 재경분과 · 법사분과를 구성,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했다.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종단과 한국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도출된 과제를 이행하자"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성사, 조현대 신도회장 취임

### 1000여 사부대중 모여 축하인사 전해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의 신임 신도회장으로 선출된 조현대 회장이 1월 1일 신년하례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 류병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사)조계종승가원 시무식

### 승가원장 정인 스님 "화합 · 발전 진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승가원장 정인)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1월 13일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가원장 정인 스님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다"며 "승가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종도 스님에게 회향하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영혼의 세계 빙의

##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탈종공고

• 법 명 : 법천(속명 / 박성유)

• 주 소 : 부산 동구 망양로 685번길 80

본 사찰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불교달마종 무량사 공고 제2020-1호

# 한국불교달마종 무량사 2020년 천불전 회향법회 공고

복지도량 무량사를 창건한지 어언 21년이란 세월속에 승려로서 부처님의 부름을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량사 불자님들은 스님이 혼자서 고민하고 위덕대학교에서 노인관련 논문으로 약속했던 어르신을 위한 요양원 운영은 부처님 부름의 약속을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사람의 지극한 서원이 불국토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로 부처님의 자비감응과 가피력이 항상 함께하여 장차 이 땅이 감로원천으로 화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한 불교 복지도량이 되고 불자들의 복전이 되기를 발원하며 제21회 천불부처님 회향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아 래

■ **회향법회 일시** : 2020년 **2**월 **2**일(음력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무량사 설법전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393번길 111-96
■ **전 화** : 054-261-7737 / 010-7588-7737

2020년 1월

釋迦如來遺敎弟子 六十八世法隱 太雄 合掌